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29	130	166	136
(알렐루야 노래하자)	(예수 부활하셨네)	(생명의 양식)	(예수 부활하셨도다)

제 1독서 | 사도행전 15,1-2.22-29

화답송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좌)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우)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좌)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 요한묵시록 21,10-14,22-2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4,23-29

영성체 후 묵상 |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어린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에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는 도성에서 주님의 평화를 누립시다.

Today's Gospel (John 13,31-33,34-3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  
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loves m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dwelling with him. Whoever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 yet the word you hear is not mine but that of the Father who sent me. "I have told you this while I am with you.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everything and remind you of all that I told you.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it to you.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or afraid. You heard me tell you, 'I am going away and I will come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And now I have told you this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happens you may believ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는 라틴어로 '옹호자' 또는 '위로자'를 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옹호자로 불리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의 정의 앞에서 중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또 아들과 한 본질인 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애원하신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채우시는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이는 간구를 듣는 이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아버지보다 낮지 않으신데 어째서 간구하신다고 할까요?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채우시는 이들이 간구하도록 마음을 일깨우심으로써 간구하십니다. 위로자로 불리는분도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자가 죄를 두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용서의 희망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슬픔과 고뇌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현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더 나은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 한 삶이 올 거라는 희망만 있으면 현재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지요. 따라서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이며 목적을 위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계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1885-1977)는 인간의 희망을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아님(Nicht)'에서 '아직-아님(Noch-Nicht)'으로 전환하는 운동이라고 말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민들의 '참정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주어졌습니다. 당시 평민들과 여성, 노예들에게 참정권은 없었지만, 이들은 이를 '아직-아님'으로 받아들였고, 투쟁과 저항을 통해 그것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이처럼 블로흐에게 희망은 가능성을 무(無)의 상태가 아닌 열린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도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으로 바뀌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성취, 소유, 성공은 멈춰 버립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종말이며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앞둔 인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죽음은 '아직 아님'이 될 수 없기에, 그 극복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주는 희망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부활을 체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경험은 영원한 삶이라는 미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멸할 세속적 미래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활의 미래를 희망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블로흐가 말한 것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실재하는 희망이며, 손에 닿지 않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와 영원을 향한 희망을 열어 주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Fr. 전인걸 요한보스코

### <레오 14세 교황 - '세상의 평화에 관하여' >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상 위에, 군사적 정복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분노해야 할 수많은 젊은 생명들의 학살 위에, 한 호소가 울려 퍼집니다. 교황의 호소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요한 20,19.21.26)을 되풀이하시는 그리스도의 호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그리스도의 평화는 분쟁 후의 무덤 같은 침묵이 아니며, 억압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되살리는 선물입니다. 화해와 용서, 새 페이지를 열고 다시 시작할 용기인 이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평화가 퍼져나가도록 저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교황청은 적들이 만나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민족들에게 희망이 되돌아가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 평화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위해 언제나 나서겠습니다. 온 민족이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남시다, 대화합시다, 협상합시다! 전쟁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잠잠해질 수 있고 또 그해야 합니다.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남을 것은 평화를 뿌린 이이지 희생자를 거둔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무엇보다 적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악인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선악으로 나누는 폭력적 서사의 전형인 마니교적 시각에서 벗어납시다.

## 공지 사항

### 1.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가톨릭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mailto: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2. 여정 '시즌 4' - 영적독서 모임 신청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 일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
- 기간: 6월 중순 ~ 8월 말까지

독서모임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5월 28일(수)**까지 받습니다.

\* 영적 독서 모임과 별개로 책만 따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5월 28일(수)**까지, 성당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거나, 혹은 성전 입구에 놓여진 '도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히 보여주는 위대한 표징입니다.”

-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 17,21)

### | 미사 참례자 수 |

5월 11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42명
5월 18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54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5월 25일)	루카반
다음주 (6월 1일)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5월 17일 ~ 5월 23일)

봉 헌 금	\$ 364.50			
교 무 금	\$ 570			
구민식	김정수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최민식
한상지				

### | 기도 지향 |

-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서원석 미카엘의 건강을 위해
- \* 안영규 필립보 건강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